

한반도 정세 변화가 가져올 ‘新북방’ 비즈니스 기회: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오영일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센터 (youngil@posri.re.kr)

목차

1. 탄력 받는 북방 경제 협력
2. 新북방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3. 기업 접근 전략 및 정부 지원 분야

Executive Summary

- 유례없는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 속에 새로운 동북아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며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新북방'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고조
 - '新북방 정책'은 러시아 극동 등 북방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을 우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공간적 활로를 대륙으로 넓히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 '17년 9월 문대통령은 '新북방 정책'을 위해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한러 협력분야 제시(9-Bridge 전략)
 - 하지만 최근 북한의 긍정적 변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9-Bridge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방식, 그리고 사업 확장의 기대 수준도 크게 바뀌고 있으며 9-Bridge 사업 분야 외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음
-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판단이 아닌 유라시아 지역의 Value chain 확장 및 동북아 정세 대변화라는 관점에서 '新북방'을 바라봐야 함
 - 가스 관련 사업은 PNG 연결 사업과 함께 LNG 트레이딩, LNG 인프라 건설, LNG 선박 관련 조선 산업, 북극항로 개발, 북극 자원 개발 및 유통 등으로 확대 가능
 -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은 철도 건설은 물론, 물류 거점 확대, 상품 이동 및 인적 자원 교류 확대를 통해 유라시아 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의 '新북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방안 마련 및 서방의 대러 제재 관련 우리 정부의 대러 사업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 제안 사업 심사만 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한러 정부간 협의에 따라 준비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이 제대로 활용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
 -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사업 공동 발굴은 물론, 금융 지원이 가능한 투자 구조화 작업을 지원해 주는 적극적 Work scheme이 필요
 - 우리 나라는 러시아 제재 참여국이 아님에도 국내 ECA 금융 지원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 기준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1. 탄력 받는 북방 경제 협력

□ 최근 북핵 사태 해결 가능성이 커지며 '新북방 정책'에 관심 고조

- '新북방 정책'은 한국 경제의 공간적 활로를 대륙으로 넓히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
 -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 체제를 적극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 '新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인데 이 중 최우선 국가는 러시아라 할 수 있음
- '新북방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일맥상통
 - '新북방 정책'은 얼어 붙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 우선 러시아 극동 등 북방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의 우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측면을 내포
 - 하지만 최근 북핵 사태 해결 가능성이 커지며 '新북방 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의 동시적, 다중적 연계 포석이 가능해짐

□ 유례없는 동북아 판세의 대변화 속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며 러시아 극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

- 남북러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결이 강력한 상호작용을 반복하며 러시아 극동은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전환
 - 북한 시장 개방 시 러시아 극동은 '新북방' 비즈니스의 메카로 전환되며 그 지경학적 가치가 급상승할 전망
 - 남북러 경협이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가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서 높은 미래 가치를 갖게 됨¹
 - 특히 극동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 정책'과 맞물려 '新북방' 비즈니스의 핵심 공간으로 변화²

¹ 그동안 러시아 극동은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시장성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왔음

² 러시아 정부는 경제특구와 유사한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며 외자 유치를 통한 극동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POSRI이슈리포트(2016. 9.1), "러시아

2. 新북방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³

□ '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新북방 정책' 추진 방향으로 '9-Bridge 전략'을 발표

○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분야에 대해 동시다발적 협력 추진⁴

- 이 중 수산, 농업은 단기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고, 전력, 철도 등은 공동조사, 시범사업 등으로 협력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

○ 하지만 최근 북핵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9-Bridge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방식은 크게 바뀔 전망

- 9개 사업 분야 외에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 발생

〈표 1〉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구 분	사업 내용	특징
9-Bridge 사업 중 북한 변수 제거로 활로를 찾을 분야	- 남북러 철도 연결 (TSR-TKR)	- 상품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며 시장 통합으로 발전 가능
	- 나진-하산 프로젝트	- 남북러 철도 연결, 나진-하산 사업과 관계없이 TSR을 활용한 물류 루트도 개발 중
	가스관(PNG) 연결 * Pipeline Natural Gas	- PNG 외에 러시아 LNG 트레이딩, LNG 관련 EPC, 북한 내 가스 발전소 건설
	전력망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 북극 LNG, 자원 운송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9-Bridge 사업 외 신규 사업 기회 발생 가능 분야	농업(극동)	대규모 슈퍼그리드 사업 이전에 지역 단위 스마트 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 발생
	MICE(블라디보스톡, 북러 접경 지역)	북한을 소비시장으로 활용한 곡물 유통 사업
	관광	동북아 경험(에너지, 물류, 전력), 군사 안보 관련 국제 회의, 전시 등
		- 한동해 크루즈 관광
		-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

의 新극동개발정책, '선도개발구역' 활용 방안" 참조

³ 북핵 사태 해결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개방 경제로 전환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내용

⁴ 9-Bridge 사업 내용은 기존 한-러 경험에서 논의되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타 파생 사업	강제 공급	철도, 가스관 연결 및 인프라 사업시 국내 구간에 필요한 철도 레일, 에너지 강관, 봉형강 수요 발생
----------	-------	--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

□ 북한 통과 이슈로 사업 진전이 어려웠던 에너지 분야는 주변부 사업부터 가시적 움직임이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 남북러 가스관(PNG) 연결 사업에 앞서 러시아 LNG 트레이딩 및 LNG 관련 인프라 사업에 일본 및 국내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며 접촉 중
 - '17년 12월 첫 선적이 이뤄진 러시아 북극해 야말 LNG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 KOGAS와 국내 종합상사들이 스팟 거래 및 장기공급계약 타진 중⁵
 - 북극 LNG-2 운영사 Novatek에서 발주할 LNG 액화 터미널 및 캄차트카 LNG 환적 터미널 EPC 사업 논의 진행 중

남북러 합의 시 3년 내 러시아 가스(PNG) 한국 공급 가능할 전망

□ 러중 가스관(PNG) 연결 사업 사례

- 중국은 '14년 4월 러시아와 PNG 도입 계약 서명, '19년 초 공급 시작
 - 약 4천km에 달하는 중러 가스 파이프는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은 내년부터 매년 38Bcm의 가스를 30년간 공급받을 예정
 -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공급 가격은 러시아의 유럽 수출가 U\$380/Tcm보다 낮은 U\$350/Tcm 수준(아주경제, 2014. 5. 25)
 - 계약 후 공급까지 5년이 채 안 걸림: '14년 4월 계약 서명 후 설계 개시→'15년 5월 착공→'18년말 완공→'19년 테스트 후 가스 공급 예정
- 남북러 가스관 길이는 1,122km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그간 중러 구간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여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구간만 연결하면 됨(러시아 150km, 북한 740km, 한국 232km)
 - 러시아 극동 연해주 페레보즈나야에서 북한의 동해 라인(나진-청진-경성)을 따라 한국 고성으로 연결하고, 한국 내에서는 고성에서 인천, 평택으로 연결한다는 게

⁵ 장기공급계약은 '22년부터 공급 가능한 북극 LNG-2 프로젝트 물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과거 한러 가스 협상에서 논의된 유력안

- 중러 가스관 연결 사례를 볼 때, 지형 조사 및 설계 1년, 건설 1년, 테스트 0.5년 가량 소요 예상(한국 구간은 북한 구간 건설과 동시 진행)

○ 북한 변수에 대한 통제 방안

- 북한의 가스관 차단 시 계약 물량에 대해 사할린, 북극해의 LNG로 대체 공급
- 북한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러시아가 대북 가스 공급으로 북한 전력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이 남북러 가스관에 대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

□ 러시아 극동을 혁신·첨단 지역으로 조성

○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인 러시아 극동을 혁신·첨단 지역으로 만들어 세계인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강한 의지

- '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 당시부터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을 첨단·혁신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매우 불만인 상태⁶

○ APEC 정상회담, 동방경제포럼 개최지인 루스키 섬에 스마트 단지 개발 사업 제안 시 러시아 측의 긍정적 반응 예상

- 전기 사용이 많은 대학과 아쿠아리움에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블라디보스톡 시내와 섬을 연결하는 전기 버스 셔틀 서비스 및 충전 시설 구축, 섬 내 방법·보안·주차와 같은 관제 시스템 제안 등

□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MICE 산업 관련 수요 크게 늘어날 전망

○ 러시아 극동은 북한 개발, 남북러 3각 경협, 동북아 지역 에너지, 물류, 군사 안보 등 다자간 협의를 위한 최적의 장소

- 러시아 극동은 가스, 전력, 철도 연결 사업의 시발점이자 미래 동북아 에너지 허브라는 점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가짐

⁶ '12년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3.1km의 연육교를 건설하여 블라디보스톡 시내와 연결된 러시아 극동의 최대 여름 휴양지 루스키 섬에는 극동 최대 규모의 극동 연방 대학교가 이전해 자리하고 있으며, 아쿠아리움 등 관광, 휴양 시설이 들어서있다

- 하지만 러시아 극동 최대 도시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극동 지역의 MICE 산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
- 향후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MICE 수요 증가 시 북러 접경 지역에서도 소규모 MICE 관련 인프라 건설 수요 발생 예상
 - 하산과 같은 북중러 접경 지역은 동북아 경험 및 안보 관련 높은 상징성도 있지만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어 MICE 수요 창출 가능⁷
 - 개방성, 접근성 측면 등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만 동북아 정세 변화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북한(특히 북러 접경 지역) 또한 호텔, 공항 등 MICE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니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판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극동 농업도 북한을 소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러시아 극동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콩, 쌀 등을 수매하여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공급하고 자원이나 사업권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 고려
 - 러시아 극동 생산 곡물을 수매, 보관, 유통하는 트레이더 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 내 이권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접목, 활용한 수익 창출 가능
 - 판로만 확보되면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의 생산 확대 여지는 충분하며 생산 확대 시 곡물 수매, 보관을 위한 중소형 사일로 운영 사업도 병행할 필요

3. 기업 접근 전략 및 정부 지원 분야

- 한반도 긴장 완화 시 新북방 비즈니스 범위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장을 재점검할 필요 있음
- 개별 프로젝트를 나열하여 각각의 사업성을 판단하기보다 유라시아 지역의 Value chain 확장 및 동북아 정세의 대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 가스 관련 사업은 PNG 연결 사업 외에도 LNG 트레이딩, LNG 관련 인프라 건설, LNG 선박 관련 조선 산업, 북극항로 개발, 북극 자원 개발 및 유통 등으로 확대 연결 가능

⁷ 다만 하산은 러시아 군사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은 철도 건설은 물론, 물류 거점 확대, 상품 이동 및 인적 자원 교류 확대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북 사업과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러시아 극동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전략 필요**
 - '新북방 사업'은 남북 경협사업과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변수가 감소하며 사업기회가 생성되겠지만 단기 성과에 무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한러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의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러시아 극동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의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제대로 실행되는 사례는 흔치 않아 보임**
 -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극동개발기금이 서명한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17년 9월)
 -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이 서명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융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13년11월)
-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사업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금융 지원이 가능한 투자 구조화 작업도 지원토록 하는 Work scheme이 필요**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당 수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금융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사업 구조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
 - 이러한 간극을 메워주는 방법 중 하나로 수출입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융 지원 업무를 간접 위탁하고 이들이 사업주들에게 금융투자 구조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⁸

□ 서방의 러시아 제재 관련 국내 기업 및 ECA 기관⁹의 대러 투자, 금융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또는 판단 기준을 기업과 공유할 필요가

⁸ 과거 국민연금이 선정한 자산운용사가 매칭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해오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주는 코파 펀드 사례와 유사

⁹ ECA: 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

있음

- 한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가 아님에도 러시아 투자를 위한 국내 ECA 금융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
 - 우리 정부가 직접적 제재 동참은 안 해도 서방의 2차 제재 망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어렵다는 뜻으로 추정됨
 - 하지만 정부가 '新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대러 사업 금융 지원 관련 정부 주무부처와 국내 ECA간 의견을 조율하고 그 판단 기준을 기업과 공유하여 기업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

오영일, “러시아의 新극동개발정책, ‘선도개발구역’ 활용 방안”, POSRI이슈리포트, 2016.09.01

하나금융투자, “PNG가 가져올 변화”, 2018.5.8.

[언론]

조용성, “중러 천연가스 계약, 10년 세월을 낚은 중국”, 아주경제, 2014년 5월 25일자